

기린(麒麟)에 관한 공유된 상상과 15세기 동아시아에서의 그 정치적 활용

이정하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중국 신화 전공
riverjh90@gmail.com

- I. 머리말
 - II. 정화하서양(鄭和下西洋)과 기린(giraffe)의 등장
 - III. 태종~세종조 기린 축하 사절단과 그 목적
 - IV. 역사적 실재로서 신화의 정치적 기능
 - V. 맺음말
-

I. 머리말

티모시 브룩은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에서 용의 출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원나라와 명나라 때 용이 출현했다는 여러 기사(紀事)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용이 하늘의 창조물이자 황제 개인의 상징이었고,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의 통치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하늘의 신호이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브룩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용의 존재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보기엔 기록할 만했고,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지녔다.”며 논의를 마무리한다.¹ 그의 의문에 답을 하자면,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용은 실재였다. 비록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용은 황제 개인과 결부되어 그 정치의 포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그리고 이처럼 기능하는 상상의 존재는 용뿐만이 아니었다. 용의 얼굴에 사슴의 몸통, 말의 발굽을 지니고 살아있는 벌레는 물론 풀조차 밟지 않는다는 인수(仁獸) 기린(麒麟) 역시 황제만을 상징하며, 그 출현은 황제가 성군이며 그의 치세가 태평성대임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 되곤 했다. 기린은 용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상징이었으며, 그 출현과 관련하여 몇 번의 역사 기록이 있다. 그중에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것은 15세기 초 명나라 영락제(永樂帝)가 파견한 정화(鄭和)의 대함대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초식 동물 기린(giraffe)을 조공 및 구매의 형식으로 공수해 들여온 사건이다. 이들은 giraffe를 신화적 존재 麒麟으로 받아들였고, 총 7차례나 이어진 기린의 출현은 국경을 넘어

1 티모시 브룩(저), 조현영(역),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서울: 너머북스, 2014), 33~34쪽.

한국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흔적은 두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giraffe를 기린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명대의 기린 출현이 중국 내부에 미친 영향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 결과를 넘어 그 논의를 15세기 한반도로까지 확장하여 두 가지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² 첫째, 15세기 초 명나라에 기린이 등장한 사건에 대한 조선 왕실의 반응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기린의 출현이 명나라 내부만이 아닌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를 동아시아에 공유되었던 기린에 대한 상상 및 그 정치적 작용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신화적 사유 방식이 중국과 조선에 두루 공유되었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 더 나아가 전통 시기 동아시아에서 신화가 현실과의 느슨한 경계를 넘나들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명과 조선 두 국가의

-
- 2 독일 출신 미국의 동양학자 베르톨트 라우퍼는 1928년에 그의 저서 *The Giraffe in History and Art*에서 15세기 명나라에 기린(giraffe)이 수입된 사건을 다루었다. 상세한 사항은 Berthold Laufer, *The Giraffe in History and Art* (Chicago, IL: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28)를 참조. 중국에서는 상당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상태다. 徐秀娟, 「麒麟形象的變遷與中外文化交流的發展」, 『海交史研究』 2002-01(2002); 趙秀玲, 「明沈度序本《瑞應麒麟圖研究》」, 『西北美術』 2017(2) (2017); 鄒振環, 「音譯與意譯的競逐: 麒麟, 惡那西約與長頸鹿譯名本土化歷程」, 『華中師範大學 學報(人文社會科學版)』 55(2)(2016); 鄒振環, 「鄭和下西洋與明朝的“麒麟外交”」,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2)(2018); 王光堯, 「永樂皇帝的麒麟: 海外考古調查札記(四)」, 『故宮博物院院刊』 2021(7)(2021); 張璇, 「鄭和下西洋與“麒麟”神獸」, 『文史知識』 2019(4)(2019) 등 연구가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졌고, 대만의 대중 과학서 작가인 張之傑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 張之傑, 「永樂十二年榜葛刺貢麒麟之起因與影響」, 『中華科技史學會會刊第八期』 2005(1)(2005)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화하서양을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만, 기린 사건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이은상, 『정화의 보물산: 중국의 대유류 무역사 500년으로의 항해』(과주: 한국학술정보, 2014)의 한 장(章)에서 giraffe가 麒麟으로 번역되어 들어온 사건을 다룬다. 이 밖에 기린을 포함하여 명대 동물 조공을 다룬 송정화, 「명대 동물 조공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에 대한 탐구」, 『중국학보』 103(2023)이 있다.

대내외 통치 전략이 유교라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상 체계뿐만 아니라 비밀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신화에도 기대고 있었음을 규명할 예정이다.

II. 정화하서양(鄭和下西洋)과 기린(giraffe)의 등장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목이 긴 초식 동물 기린(giraffe)이 한국과 일본에서 신화 동물 기린(麒麟)으로 불리는 까닭은 15세기 초 명나라 정화의 대항해에서 찾을 수 있다.

정화하서양(鄭和下西洋)이라 불리는 이 대항해는 1405년, 조선 태종 5년이 자 명 영락 3년에 시작했으며, 사령장관 정화를 태운 62척의 대선단이 푸저우(福州)에서 약간 떨어진 민강(閩江)에서 출사했다. 정화의 원정대는 영락제를 지나 홍희제(洪熙帝), 선덕제(宣德帝), 정통제(正統帝) 재위 기간까지 28년간 7차례 중국을 떠나 참파, 자바 등 동남아시아를 돌아 멀리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까지 이어졌으며, 동남아~아프리카 일대의 30여 개국을 방문했다. 정화는 7번의 항해 동안 해외 여러 국가와의 조공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각국의 진귀하고 이국적인 문물을 공수해 명 황제에게 바쳤는데 그중에 조공 및 구매의 방식으로 확보한 기린(giraffe)도 있었다.

1414년(영락 12) 정화의 제4차 항해에서 방갈랄(榜葛刺, 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으로 기린을 조공했고, 그다음 해인 1415년 마림(麻林, 현 케냐 마린디)에서 기린을 보내왔다. 1417년 제5차 항해 때는 아단(阿丹, 현 아라비아반도 아덴)에서 기린을 조공했으며, 1421년 제6차 항해에서는 정화가 기린을 직접 구입해 갔다. 1431년 제7차 때는 천방국(天方, 현 사우디아라비아 경내의 메카)에서 한 번 더 기린을 사들였고, 1433년에는 소문답랍(蘇門答臘, 수마트라)에서, 1438년에는 방갈랄에서 다시 한 번 기린을 조공하여,

기린은 총 7번 조공과 구입을 통해 명나라로 수입됐다.³ 이때 공물로 들어온 이국 동물들은 기린뿐만 아니라 사자, 표범, 타조 등 다양했으나 명 조정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기린이었다. 그 까닭은 기린이 ‘기린’이었던 데에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giraffe가 명나라로 유입되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상의 동물 麒麟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사실 giraffe의 번역어가 麒麟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주라파(zūlāfā, 祖刺法)라는 명칭 또한 사용되었다.⁴ 푸젠(福建) 창리(長樂) 난산(南山)의 여신 마조(媽祖)를 모신 천비행궁(天妃行宮)에 자리한 ‘천비영응지기비(天妃靈應之記碑)’에서 그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정화의 공적을 기록한 이 비석에 따르면 “아단국은 기린을 바쳤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주라파라고 한다. 또 장각 마하수(오릭스)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파’는 아랍어 Zurāfa의 음역이다.⁵ 또 장화의 수행원 비신(費信)이 쓴 『성사승람(星槎勝覽)』에도 좌법아국(佐法兒國)과 천방국(天方國) 두 군데가 주라파의 원산지로 나타난다.⁶ 쑤우전환(鄒振環)에 따르면 주라파는 추라(cūlà, 徂蠡)의 또 다른 번역인데, 추라는 소말리아어 giri에 대응한다고 했다.⁷ 정화의 원정에 참여했던 통역사 마환(馬歡)은 그의 저서 『영애승람(瀛涯勝覽)』에 아단국에서 구매한 물건과 동식물을 나열하며 기린을 언급하는데, 19세기 사학자 풍승균(馮承鈞)은 “기린(qilín, 麒麟)은 소말리아어 giri에 상응하는 음이다”라고 주를 달았다.⁸ 다시 말해, giraffe의 아랍어 명칭 Zurāfa는 주라파(zūlāfā,

3 鄒振環, 앞의 논문(2018), 3쪽.

4 우리말로 읽으면 祖刺法은 조라법이지만, 여기서는 명나라에 수입된 후 기린의 외국어 명칭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만 우리 한자음이 아닌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 표시했다.

5 阿丹國進麒麟 番名祖刺法 並長角馬哈獸 碑文, 百度百科(<https://shorturl.at/zUY34>).

6 費信(著), 馮承鈞(校注), 『星槎勝覽校注』(北京: 中華書局, 1956), 66쪽과 73쪽.

7 徂蠡 역시 한자음은 조랍이지만, 여기서는 중국어 음으로 표기한다. 鄒振環, 앞의 논문(2016), 120쪽.

祖刺法)로 번역이 되었고, 소말리아어 giri는 추라(cúlà, 狃蠟) 또는 치린(qílín, 麒麟)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처럼 총 세 종류의 역명(譯名)에서 기린(麒麟)이라는 이름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송정화는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지식인 집단의 인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어떤 대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인하게 되면 곧 ‘지식’이 되는데, 조공 받은 기린(giraffe)을 길조 기린(麒麟)으로 동일시하여 상서로운 상징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해석 체계가 당시 지식인 사대부 계층의 공인을 얻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인 사대부 계층의 공인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리만 있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주라과’와 ‘추라’에 비해 기린(麒麟)은 풍부하고도 중요한 상징 의미를 지녔던 덕분에 더 널리,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린(麒麟)은 신화적 존재로, 『예기』에 따르면 세상 모든 발굽 달린 동물의 으뜸이다.¹⁰ 죽은 이의 영혼을 보호한다고 하여 왕릉 석상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복과 벽사의 능력을 지녀 건물 장식에도 쓰이는 등 풍부한 상징으로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상징이자 도상이었다. 무엇보다 현실 유교 정치에서 큰 역할을 발휘했는데, 맹자는 발굽 달린 짐승의 으뜸인 기린, 새들의 으뜸인 봉황, 산 중의 산 태산에 빗대어 공자가 인류 최고의 성인(聖人)임을 피력했는데, 덕분에 기린은 공자 그 자신 또는 성인을 상징하게 되었다.¹¹ 또 성군이 있어야만 기린이 나타난다는 『춘추』의 기록으로 기린은 성군과

8 馬歡(著), 萬明(校注), 『明鈔本瀛涯勝覽校注』(北京: 海洋出版社, 2005), 81쪽.

9 송정화, 앞의 논문(2023), 167쪽.

10 『禮記正義』, “何為四靈? 麟 鳳 龜 龍 謂之四靈. 故龍翼為畜 故魚鱗不滄. 鳳以為畜 故鳥不獮. 麟以為畜 故獸不狘. 龜以為畜 故人情不失.”

11 『孟子』公孫丑上,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 泰山之於丘垤 河海之於行潦 類也. 聖人之於民 亦類也. 出於其類 撥乎其萃 自生民以來 未有盛於孔子也.”

그가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상징했다.¹² 이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의 동물 기린의 정확한 생김새를 알지 못했기에 기린의 상상도는 역사적 흐름과 주류 사상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했다.¹³ 그렇기에 기린(giraffe)이 15세기에 처음으로 명나라에 수입되어 인수(仁獸) 기린으로 소개되자 별다른 장애 없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¹⁴ 비슷한 이름, 정치적으로 활용되던 상징 의미 그리고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할 원본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동물의 외형과 상상의 동물에 관한 문헌 기록 상 외형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 이 모든 것이 giraffe와 麒麟이 하나의 동물로 명나라에 받아들여지게 했다. 그와 더불어 기린이라는 명칭이 정착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화가 항해를 떠났던 목적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한나라 이래로 중국 왕조는 외국과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방식의 조공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적으로만 형식을 갖춘 교역이었다. 조공에는 외국 통치자가 보내는 현지의 진기한 물건인 조공품이 수반되었고, 황제는 답례로 사신에게 받은 물품의 가치와 같거나 더 높은 회사품을 하사했다. 이것은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과 상호 합법화(mutual legitimation)를 위한 장치였으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를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조공을 통해 중국은 갈망하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 나라는 무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¹⁵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洪武帝)는 조공 사신을 맞이하는

12 『春秋公羊傳』, “哀公十四年 春 西狩獲麟. 麟者 仁獸也. 有王則至 無王者則不至.”

13 이재중, 「麒麟圖像研究」, 대구가톨릭대학 박사학위논문(2000).

14 일찍이 1928년에 이미 15세기 명나라의 기린 수입 사건에 대해 다룬 베르톨트 라우퍼 역시 사슴의 몸통, 소의 꼬리 그리고 인자한 성품이라는 giraffe와 麒麟의 유사성 때문에 15세기 중국인들이 둘을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Berthold Laufer, *op. cit.*(1928), p. 42.

15 티모시 브룩(저), 조현영(역), 앞의 책(2014), 425~426쪽.

데 많은 신경을 썼다. 명을 방문하는 모든 사신단은 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변경 너머의 통치자들에게까지 황제의 통치권을 굳히는 효과가 있었다. 영락제 역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공 체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그렇기에 그가 정화 원정단을 파견한 근본적인 이유는 황제의 위상을 높이고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¹⁶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정화의 대항해에서 기린이 조공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대내외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기린은 효과적이고도 반가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린 조카를 축출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영락제는 정통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관점에서 그는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덕한 군주였다. 이런 때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벌인 대항해 사업에서 자신이 성군이고, 그 치세가 태평성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린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서로움의 징표가 등장해도 애써 축하를 사양하는 것 또한 유교적 덕목이었던 터라, 영락제는 1414년 방갈랄에서 처음 기린을 조공했을 때 축하 행사를 청하는 대신들의 의견을 물리쳤고, 이듬해 1415년 마린에서 기린을 보내왔을 때도 거절했다.¹⁷ 그러나 실제로는 그해 11월 봉천문(奉天門)에서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대신들은 기린의 출현이 모두 영락제의

16 티모시는 정화 원정단을 조공 체제의 틀 속에서 이해한다면 이후 원정단 파견이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공 체제, 즉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회복된 이상, 이처럼 호화스러운 원정단은 낭비였던 것이다. 위의 책, 430쪽.

17 이 같은 관행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도 일어난 바 있다. 선성(宣城, 현 경북 안동)에서 기린이 발견됐는데, 지방 관리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왕실에서도 이를 축하하지 않았다. 이에 정약용은 「선성획린승」을 지어 정조의 겸양의 미덕을 칭송했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宣城獲麟頌」 “然今上謙讓揖遜 不喜禎祥 動不策名 德不加號 靈芝甘露 白雉寶鼎 敢有聞者 厥有大咎 曰 汝諂諛 今麟出游 我罔敢聞.’ 於是七日而麟隱焉. 臣鏞竊聞此事 以爲麟出非瑞 茲唯臣下匿弗以聞 時乃大瑞. 臣猥忝詞林 曾掌太史 獲觀茲瑞 宜頌德美.”

덕이 크고 넓어 멀리 해외로까지 뻗은 덕택이라고 칭송했으며, 영락제는 태조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혜와 대신들이 힘써 일하고 보좌한 결과라며 공을 돌렸다.¹⁸ 이처럼 성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겸양의 미덕을 충분히 보인 후 영락제는 대대적으로 축하하며 자신의 공적을 기렸다. 화공 심도(沈度)를 시켜 <명인서응도(明人瑞應圖)>를 그리고 「서응기린송병서(瑞應麒麟頌並序)」를 지었으며, 대신들이 바친 축하의 시를 모은 『서응기린시(瑞應麒麟詩)』는 16권을 넘었다고 한다.¹⁹ 이렇게 형체 없는 실재였던 상상의 동물 기린(麒麟)은 기린(giraffe)의 외피를 쓰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적 기능을 발휘했고, 그 출현은 명 황제의 위엄, 명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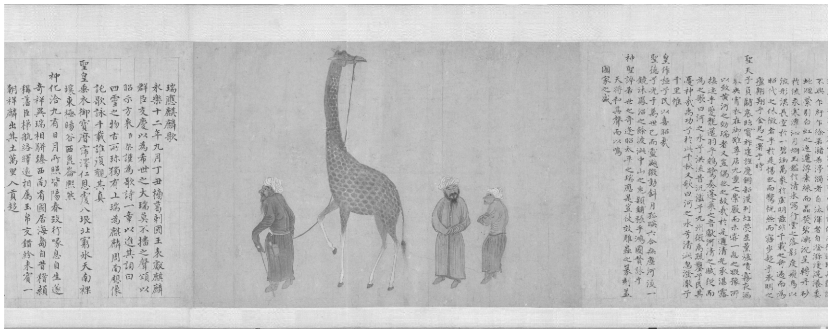


그림1- 명(明), <명인서응도(明人瑞應圖)>의 일부,
30×686.3, 대만 국립고궁박물관(國立故宮博物院) 소장

18 『明實錄』 영락 13년(1415) 12월 19일, “上御奉天門受之 文武群臣稽首稱賀曰 陛下聖德廣大 被及遠夷 故致此嘉瑞。 上曰 豈朕德所致 此皆皇考深仁厚澤所被及 卿等勤勞贊輔 故遠人畢來。”

19 趙秀玲, 「明沈度序本《瑞應麒麟圖研究》」, 『西北美術』 2017(2)(2017), 115쪽.

Ⅲ. 태종~세종 시기의 기린 축하 사절단과 그 목적

정화의 대항해로 기린이 명나라로 수입된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두고 그간 중국 내부에서의 반응만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기린의 출현이 가져온 파급력은 국경을 넘어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까지 미쳤다. 『명사』 정통제 3년(1438)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 해에 방갈랄에서 기린을 조공하였다. 국내외에서 축하의 뜻을 보내 왔다.²⁰

1438년은 기린이 마지막으로 공수된 해였는데, 이때 축하의 뜻을 보내왔다는 외국에는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이 기린의 출현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기린이 명나라에 일곱 번 출현하는 동안 조선은 축하 사절단을 네 번 파견했다.

첫 사절단은 기린이 처음으로 명나라에 나타난 1414년, 즉 조선 태종 14년이었다. 1414년 9월 7일에 정화가 데려온 첫 기린이 명나라에 상륙했고, 같은 해 윤9월 21일에 하천추사(賀千秋使) 김구덕과 통사(通事) 김을현이 명에서 돌아와 방갈랄에서 기린(麒麟)을 바친다는 주본(奏本) 1통을 전사(傳寫)해 태종에게 소식을 전했다. 태종은 불과 9일이 지난 30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 공조판서 권충과 총제(摠制) 이징을 명으로 파견했다.²¹

두 번째는 1419년 세종 1년이었다. 한 해 전에 사은사 일행으로 명나라를 방문했던 선존의, 민광미, 그리고 경녕군(敬寧君) 등이 11월 27일 돌아와 중국에 기린, 사자, 복록(福祿) 등 이상한 짐승이 있음을 세종께 아뢰고,

20 『明史』, “是年 榜葛刺貢麒麟 中外表賀.”

21 『太宗實錄』 14년(1414) 윤9월 30일, “遣工曹判書權衷 總制李澄如京師 賀麟見也.”

선물로 그 그림도 가지고 왔다. 이들은 직접 이국 동물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얼룩말인 복록을 두고 “당나귀와 같으나 높고 크며, 목은 길고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황제가 스스로 복록이라고 이름한 것이라 한다.”고 회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얼룩말을 두고 목이 길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기린과 얼룩말의 특징을 섞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²² 세종은 경녕군이 황제의 총애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할 겸 상서로운 동물들이 나타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12월 17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권홍과 동지돈녕(同知敦寧) 문귀를 명으로 보냈다.²³ 그런데 이때는 이미 명나라에 세 번째 기린이 등장한 1417년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세 번째 표문을 올린 것은 여섯 번째 기린이 공물로 들어온 1433년 세종 15년이었다. 12월 8일 사은사 성원군(星原君) 이정녕 등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장계(狀啓)를 올려 중국에 경성(景星)이 나타나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린, 사자, 현호, 복록 등을 바쳐 북경의 문무백관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²⁴ 그러자 세종은 12월 25일에 의산군(宜山君) 남휘와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홍리를 파견하여 표문과 전문을 보냈다.²⁵ 그 후, 마지막으로 사행을 파견한 해가 바로 상술한 『명사』의 1438년 세종 21년이다. 이때 세종은 인수부윤(仁壽府尹) 최사의를 보내 다시 한 번 기린의

22 『世宗實錄』 1년(1419) 12월 7일, “敬寧君 贊成鄭易 刑曹參判洪汝方等回自北京, 皇帝就賜麒麟 獅子 福祿, 隨現寺 寶塔寺祥瑞之圖五軸, 福祿似驢而高大, 頸長抗, 白質黑文, 人不能名, 帝自名之曰福祿云.”

23 『世宗實錄』 1년(1419) 12월 17일, “遣判敦寧府事權弘 漢城府尹徐選 奉表箋如京師 上率百官 拜表箋如儀 賜弘 選等衣及毛冠 笠靴.”

24 『世宗實錄』 15년(1433) 12월 8일, “謝恩使星原君 李正寧等到遼東馳啓 欽天監奏 宣德八年閏八月初八日 景星見於西北天門之上, 又有海外諸國 來貢麒麟 獅子 玄虎 福祿 在京文武百官上表稱賀.”

25 『世宗實錄』 15년(1433) 12월 25일, “遣宜山君 南暉 中樞院副使洪理如京師 謝賜書籍 兼賀祥瑞 上率群臣 拜表箋如儀.”

출현을 하례했다.²⁶

황제에게 보낸 표문(表文)과 황태자에게 보내는 전문(箋文) 중 태종 때의 것은 기록이 없고 세종 때 것은 모두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성군 명 황제가 다스리는 태평성대였기에 기린을 비롯한 상서로운 동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칭송 일색이다. 세종이 처음으로 보낸 하표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등극함에 그 빛이 태평을 가져오고, 신물(神物)이 때를 타고 일어나 아름다운 선물이 나타나고, 빛이 비쳐서 미치는 곳에 기쁨이 골고루 퍼지도다. 공경하게 생각건대 황제의 도는 미륵(彌綸)과 합치되고 공은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백성이 편하고 만물이 성하니, 날고 잠기는 동물과 식물도 모두 편하며, 예(禮)가 구비(具備)하고 악(樂)이 일어나니, 화하(華夏)와 만백(蠻貊)이 다 따르도다. 이 신기하고 이상한 산물은 태평을 이룰 징조(徵兆)에 합치되는 것이니, 기린은 오행의 정기요, 사자는 백 짐승의 어른이라, 하물며 복록이 아울러 나타난 것은 더욱 예나 이제에 듣기 드문 일이라, 모두 화기(和氣)가 모임으로써 나타난 것이요, 세상을 잘 다스린 감응이라 하겠노라.²⁷

황제가 완전한 도를 이룩하여 만백성과 동식물이 편안히 살아가고, 세상 전체가 감화되자 기린, 사자, 복록과 같은 신비한 동물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칭송한다. 신성한 존재의 출현을 황제의 정치적 능력과 연결해 인식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유 방식 중 하나인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이 잘

26 『世宗實錄』 21년(1438) 1월 3일, “遣仁壽府尹崔士儀 如京師賀麟見 上率群臣拜表如儀.”

27 『世宗實錄』 1년(1419) 12월 17일, “聖人御極 光啓太平. 神物應時 式昭嘉覲. 照臨所暨 權忭均均. 欽惟道合彌綸 功參化育. 民康物阜 飛潛動植之咸寧 禮備樂興 華夏蠻貊之率俾. 惟茲靈異之產 允協泰亨之徵. 麟爲五行之精 獅乃百獸之長. 矧福祿之駢出 尤今昔之罕聞. 皆由和氣之所鍾 實是至治之所感.”

드러난다. 황태자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 또한 비슷하다.

저궁(儲宮)께서 덕을 길러 황제를 도우니, 신기한 조물이 모여들어 하늘의 주심을 밝혔도다. 일은 역사에 빛나고 기쁨은 신공(臣工)에 넘쳤도다. 공손히 생각건대 위대한 도량은 못과 같이 깊고 영명한 자질은 옥과 같이 아름다워 능히 삼선(三善)을 온전히 하였으며, 뜻은 항상 순종하기에 돈독하고 만기(萬機)에 참여하여 일을 결단하니, 공은 더욱 천지 만물에 미쳤도다. 이에 여러 가지 상서가 모두 나타나 길이 태평의 기초를 닦았으니, 이것은 옛적에도 드물었던 바로서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이 모두 경하하나이다.²⁸

황제뿐만 아니라 황태자가 덕을 잘 닦고 황제를 훌륭히 보좌한 덕분에 기린과 같은 신성한 동물이 출현하는 세상에 보기 드문 경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표문과 전문은 황제와 황태자의 빛나는 덕성 덕분에 세상 만물이 태평하게 살아가고, 중화 질서로 운영되는 천하가 평화로워 기린과 같은 상서로운 동물이 명나라에 나타날 수 있었음을 극찬한다. 끝맺음은 자신이 조선의 부족한 군주임에도 명나라가 이룩한 태평성대를 함께 누릴 수 있어 기쁘며, 직접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다행히 성한 때를 만나 기쁘게 상서(祥瑞)의 감응을 들었으나, 몸이 외복(外服)에 얽매어 비록 조반(朝班)에 참여하는 것은 막혔으나, 마음은 중신(中宸)에 쏟아지고 정성은 호배(虎拜)를 다하나이다.²⁹

28 『世宗實錄』 1년(1419) 12월 17일, “儲宮毓德 載贊皇猷. 造物鍾神 式昭天貺. 事光簡策 喜溢臣工. 恭惟偉量淵沖 英資玉裕. 克全三善 志恒篤於順承. 參決萬機 功益臻於化育. 茲致諸祥之畢至 以基永世之太平. 前昔所稀 華夷咸慶.”

29 『世宗實錄』 1년(1419) 12월 17일, “伏念 臣幸際昌辰 欣聞瑞應. 迹縻外服 班雖阻於駿奔 心中宸 誠倍殫於虎拜.”

이처럼 태종~세종 연간에 기린의 출현을 축하하는 사절을 지속적으로 보낸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초의 대내외 정세를 알아야 한다.

1368년 명이 원을 몰아내고 건국하며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다. 명 태조는 즉위 이래 황제권을 강화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고, 대외적으로도 명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다지기 위해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따라 주변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 명에 조공할 것을 채근했다.³⁰ 또 황위를 찬탈하여 제위에 오른 영락제는 상술했듯 조공 체제를 기반으로 한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정화를 파견한 것은 물론 요동도사와 누르간도사 설치나 베트남 정복과 같은 군사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신생 국가 명이 대내외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자 역시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의 정치적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압도적인 국력을 지닌 중원의 명나라와 마찰을 피하고자 우호를 다지는 데 힘을 기울였다. 1388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하며 ‘이소역대불가(以小逆大不可)’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태종은 1407년(태종 7) 영락제의 베트남 정복 소식을 듣고 지성사대(至誠事大)를 대명 외교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대외 팽창론자였던 영락제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세심한 사대를 통해 그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태종의 사대가 영락제의 공세를 피하려는 방어적인 것이었다면, 세종은 문자 그대로 지성사대를 통해 명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³¹ 또 명 외에도 조선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했다. 두만강 유역에서는 야인들의 조선 내습이 빈번히 일어났고 만주 지역은 여전히

30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21쪽.

31 위의 책, 25~28쪽.

여러 여진의 정치세력 각축장으로 남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마쿠라 막부 이후 오랫동안 분열 상태에 있던 무가들의 난립사태가 끝나고 조선이 건국한 1392년에 북조의 고코마쓰 천황이 일본을 통일했다. 그러나 서부 규수 지방까지는 그 위령이 미치지 못한 탓에 조선과 가까운 대마도를 근거지로 왜구의 침략이 끊일 날이 없었다.³²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조선은 건국 초기에 내부적으로도 산적한 문제가 많았다. 무력으로 왕권을 잡았던 탓에 명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은 태종에게 매우 중요했고, 이어 세종 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대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대명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³³ 네 번의 기린 출현 축하 사절단의 목적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종이 처음으로 기린의 출현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던 1419년은 이미 기린이 수입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세종이 표문을 보냈던 까닭은 왕위에 오른 이듬해에 명분을 찾아 명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에 있다. 표문을 보내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제스처였다. 조선은 새해와 같은 명절이나 황제의 탄생일 또는 황실 구성원의 임명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황제의 덕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을 때도 표문을 보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명 조정 내외의 흐름에 발맞추어 제때에 표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있다. 예컨대 1437년 명나라에서 봉천전(奉天殿)에 벼락이 떨어진 후에 죄수를 일부 사면해 준 사건이 보고되자, 세종은 표문을 보낼지 여부를 대신들과 상의한다. 도승지 조서강, 좌승지 이승손,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가 반대하자 세종은 다시 좌참찬(左參贊) 권제와

32 정윤재·정재훈·부남철·유미림·배병삼·강숙자·박현모·이지경·박영도·문중앙, 『세종의 국가경영』(서울: 지식산업사), 2006.

33 위의 책, 254쪽.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를 불러 의견을 묻는다. 세종이 밝힌 표문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선덕(宣德) 신해년에 혜성(彗星)이 나타났을 때에 함예성(含譽星)이라고 하여 해내(海內) 여러 나라들이 모두 하례하였고, 나도 또한 듣고서 축하하는 표문을 바쳤다.³⁴ 지금 황제가 즉위하여 해내 죄수를 대사하였는데, 나도 또한 국내 죄수를 사(赦)해 주고 표문을 갖추어서 진하하고 이어서 예부에도 자문(咨文)을 보내어 죄수를 용서한 연유를 알리려 한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또 하늘이 경계를 내리는 것은 황제를 돌보는 것이니, 이제 국가에서 표문을 바치면서, 처음은 은 태무(殷太戊)와 주 선왕(周宣王)의 고사(故事)를 인용하고, 중간에는 황제께서 능히 하늘 경계를 조심하여 마침내 더욱 융숭하고 태평하여진다는 뜻으로 말을 하면, 황제도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한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예의지국(禮儀之國)이라 하는데 이런 변고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옳겠는가.³⁵

세종이 보기에 벼락이 상서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하늘이 황제의 정치를 두루 살핀다는 뜻으로 하늘과 황제 사이의 연결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내(海內) 여러 나라들이 모두 하례했고, 나도 또한 듣고서 축하하는 표문을 바쳤다.”는 부분이다.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을 때 표문을 보내는 것은 해내, 즉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에 편입된 나라의 공통된 외교 행위이자 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34 밑줄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35 『世宗實錄』 25년(1443) 6월 28일, “然宣德辛亥彗星見時 以爲含譽星而海內皆賀 予亦聞之進賀. 今皇帝即位赦海內 予亦有境內 具表進賀 仍移咨禮部 以致(肆)[赦]有之由. 議者又以爲: ‘天之垂戒 乃眷顧皇帝之意. 今國家進表 初引殷太戊, 周宣王之事 中言皇帝克謹天戒 終以益致隆平之意 則皇帝無奈喜悅乎? 我國古稱禮義之邦 聞之而陽若不聞可乎?’”

세종이 1433년 세 번째로 보낸 기린 출현 축하 사절은 사은사가 요동에서 보낸 장계를 받고 이루어진 조치였는데, 12월 8일 기사는 이들이 “급히 장계를 올려 보고하기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계란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급히(馳)” 올린 장계가 북경의 문무백관이 기린 등 신기한 동물의 출현을 축하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 행사에 조선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다급한 마음을 반영한다.

IV. 역사적 실재로서 신화의 정치적 기능

이처럼 조선이 대중(對中) 외교를 통해 중국과 다른 주변 국가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은 한반도 역사를 반추했을 때 특이하지 않다. 다만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이 외교 전략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신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19세기 서양으로부터 신화라는 개념과 어휘를 수입하기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신화는 진실 또는 거짓, 현실 또는 허구 두 가지 상이한 대상으로 동시에 인식되었다. 진실로 믿어진 신화는 역사적 실재로서 정치적으로 기능했으며, 허구로 치부된 후자의 경우 피지배계층의 오락거리로 여겨졌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현실 정치의 합법성에 대한 인정에 있었다.³⁶

‘기린 사건’, 다시 말해 기린이 나타나 명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태평성대임을 증명했다는 이 사건에는 세 가지 신화적 사유방식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상서로움의 징표인 기린에 대한 상상이다. 기린은 현실에 실존하

36 선정규, 「중국 신화관의 변천 과정 연구」, 『중국어문논총』 16(1999), 81쪽.

지 않는 신화적 존재이며, 상술한 바 있듯 사대신수(四大神獸)로서 일련의 초자연적인 서사를 갖추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인간, 특히 통치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이다. 한 대(漢代) 동중서(董仲舒)는 그전부터 전해져 오던 천인관계론을 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상서(祥瑞)·재이(災異)설을 중심으로 한 천인감응론을 확립했다.³⁷ 이들이 상서와 재이로 받아들인 것은 대체로 흰 까마귀, 흰 사슴처럼 희귀한 동물의 출현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 현상이었는데, 전통 시기 동아시아인들은 이를 군왕의 정치와 연결 지어 생각했다. 동중서의 설명에 따르면 상서로운 징표와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나라가 대도를 잃어 망할 때가 되면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책망하는 뜻을 알리는데, 그래도 자성할 줄 모르면 다시 괴이한 현상으로 놀래 주어 두려워하게 했고, 그래도 바꿀 줄을 모르면 드디어 손상을 입혀 망하게 했습니다. ... 제왕이 천명을 받으면 천하 만민이 한마음이 되어 천명을 받은 제왕에게 부모에게 귀부하듯이 귀속하므로 하늘도 그 정성에 감응하여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³⁸

또 천명을 받은 자만이 하늘로부터 상서의 징표를 받을 수 있는데, 천명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동중서는 공자가 봉황새가 날아오지 않고 하도도 나타나지 않음을 한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공자는

37 김동민,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한 고찰: 祥瑞·災異說을 중심으로」, 『동양 철학연구』 36(2004), 322쪽.

38 『漢書』 卷五六董仲舒傳, “國家將有失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尚不知變 而傷敗乃至. … 天下之人同心歸之 若歸父母 故天瑞應誠而至.”

상서로운 물건을 불러들일 덕망을 지녔음에도 신분이라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서로운 징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⁹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선정(善政)과 덕치(德治)에 있다. 동증서는 한무제가 천자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상서의 징표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민의 도덕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⁰ 마지막으로, ‘태평성대’라는 것 자체 역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세계에 관한 상상이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오랫동안 갈구되어 온 요(堯)·순(舜)·우(禹) 삼대 성왕(聖王)이 다스렸던 황금시대에 관한 상상은 상(商)의 갑골문이나, 주(周)의 금문(金文) 자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에 관한 설화는 대부분 공자 이후에 형성되어 발전해 나갔으며, 세 명의 제왕은 점차 모든 유가 덕목의 원형 그 자체가 되었다.⁴¹ 예컨대 ‘강구(康衢)’와 ‘격양(擊壤)’은 요 임금에 다스린 시대를 잘 설명하는 고사인데, 요 임금이 즉위 50년에 강구(康衢)라는 지역으로 시찰을 나갔다가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것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순 임금에게 선위했다고 한다. 격양은 일종의 놀이인데, 천하가 평화롭고 백성들도 별다른 일이 없어 한 노인이 길에서 격양을 하자, 구경꾼들이 “크도다! 황제의 덕이여.”라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⁴² 순 임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고사는 『예기·악기(禮記·樂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먼 옛날 순임금이 오현금을 타며 <남풍>을 불렀다.”고 했다.⁴³ <남풍가>는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노여움을 풀것구나. 남풍이 때맞춰 불어옴이여! 우리 백성의 재물을

39 『漢書』, “孔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自悲可致此物 而身卑賤不得致也.”

40 『漢書』, “今陛下貴爲天子 富有四海 居得致之位 操可致之勢 又然而天地未應有能致之資 行高而恩厚 知明而意美 愛民而好士 可謂誼主矣. 而美祥莫至者 何也. 凡以教化不立而萬民不正也.”

41 H. G. 크릴(저), 이성규(역), 『공자: 인간과 신화』(서울: 지식산업사, 1983), 166쪽.

42 『帝王世紀年』, “天下大和 百姓無事 有八十老人擊壤於適 觀者歎曰大哉帝之德也.”

43 『禮記·樂記』, “舜作五弦之琴以歌南風 夔始制樂以賞諸侯.”

부유케 하리라 하였다.”라는 단 네 마디의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지만, 순임금이 백성에게 남풍과도 같은 존재임을 빗댄 강력한 상징이었다.⁴⁴ 우 임금은 물길을 터 홍수를 해결하여 나라를 구제하고 백성을 살린 공로로 순 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은 인물로, 공자는 그를 두고 “우 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 평소의 음식은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제사에는) 귀신에게 효성을 다하시고, 평소의 의복은 검소하게 하시면서도 불(黻)·면(冕)의 제복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시고, 궁실은 낮게 하시면서도 (도랑을 만드는) 치수 사업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우 임금은 내 흠잡을 데가 없으시다.”고 할 정도였다.⁴⁵ 이 같은 요·순·우 삼대가 이룩했다는 황금시대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했고, 이는 현실의 통치자들에게 그들 역시 덕치(德治)를 이루어 황금시대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예법 제도를 철저히 실천하면 현실 군주도 성왕이 될 수 있다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논리는 통치자들에게 하나의 준거로 작용했다.⁴⁶ 전통 시기 군주라면 모두가 표면적으로나마 성왕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군주의 사람됨은 물론 성공적인 정치의 표준이었다. giraffe의 세 가지 번역어 중에 麒麟만이 선택받아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황금시대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현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본인의 치세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황제의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우연히 조공을 통해 접하게 된 giraffe를 기린(麒麟)으로 번역하고, 명 황제 통치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징표로 받아들이고, 또 조선에서 네 차례나 축하 사절을 보낸 일련의 정치적 연쇄 작용이 일어난 기린 사건은 이 같은 전통적인 신화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

44 『孔子家語·辯樂解』,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民之財兮.”

45 『論語』 泰伯篇, “禹 吾無間然矣. 非飲食 而致孝乎鬼神. 惡衣服 而致美乎黻冕. 卑宮室 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

46 장형근, 『성왕: 동양 리더십의 원형』(서울: 민음사, 2012), 311쪽.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신화는 역사적 실재로서 ‘참된 이야기, 더욱이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으며, 현실 정치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누구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인데도 전통 시기에 신화가 현실적이고도 정치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엘리아데는 신화가 초자연적 존재자의 행위에 관한 역사를 구성하고, 이 역사는 실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실하며, 초자연적 존재자의 위업이기 때문에 신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⁴⁷ 다시 말해, 전통 시기 동아시아인은 실존 인물로 알려진 신들의 경이로운 행적을 그들이 지닌 신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했다.⁴⁸ 그렇기에 신화에 관한 전통 시기의 두 가지 인식—역사적 실재로서의 신화와 황당무계한 오락물로서의 신화는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서로 쉽게 스며들 수 있었다. 정치적 목적에 부응한다면 실재했던 역사로 믿어진 신화일지라도 그 초자연적 특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실성을 더 단단하게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태평성대 및 이와 밀접하게 결합한 기린에 관한 상상은 일종의 정치 신화로서 모두 비이성적인 사유 방식을 정치 영역에 적극 끌어들이기 기능했다. 정치적 권위와 규범의 합법성 및 우월성을 강화하는 데 이성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비이성적인 측면이 유효하게 작용했기

47 미르치아 엘리아데(저), 이은봉(역), 『신화와 현실』(과주: 한길그레이트북스, 2011), 68쪽.

48 예컨대 청대 고증학자郝懿行은 『山海經箋疏』에서 “鯀復生禹.”, 즉 “곤의 배에서 우가 태어났다.”는 구절에 대해 “伯禹腹鯀 即謂鯀復生禹 言其神變化無方也.”, 즉 “우가 곤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즉 곤이 다시 우로 태어난 것을 말함이고, 그 신성한 변화에 구애 받음이 없음을 이야기 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우 임금의 탄생에서 나타난 신이함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남과 다른 비범한 성인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郝懿行, 『山海經箋疏』(台灣: 藝文印書館, 1975), 479쪽.

때문이다.⁴⁹ 15세기 명나라에 기린이 7차례나 등장했어도, 실제 정치에 아무런 변화도 일지 않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한 것 또한 아니었지만, 기린이라는 상서로운 상징, 즉 정치적 언어만으로도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에 내제한 고질적인 문제를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⁵⁰ 영락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실제로 선정을 펼쳤는지 여부를 떠나 태평성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린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황제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 부과되었던 ‘덕으로 충만한 군주 되기’라는 책무에서 일정 부분 해방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 성왕은 현실의 군주가 인격적으로 수련을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였기 때문에, 전통 시기 동아시아의 군주들은 모두 성왕을 모델로 삼아 자신이 과거의 황금시대를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 주변의 지식인 집단 역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태평성대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이상이었던 기린이기 때문에, 그 증거처럼 상상되어 온 기린 역시 쉽게 giraffe라는 현실의 외피를 뒤집어 쓸 수 있었다.

반면 방갈랄, 아단 등에서 명나라에 기린을 보낸 것은 조선에서 기린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고도 정치적인 맥락에 따른 것이었으나, 조선과 달랐던 점은 여기에는 기린과 태평성대에 관한 상상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로써 명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편입해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무역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기린(giraffe)을 조공품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기왕의 조공 품목 선택 원칙을 고려했을 때 희귀성에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기린이 희귀하다는 점 외에도 명나라에 당도했을 때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49 선정규, 「중국 정치신화의 기능과 유형」, 『중어중문학』 53(2012), 95~96쪽.

50 Murray Edelman, *Political Language: Words That Succeed and Policies That Fail* (Orlando: Academic Press, 1977), p. 4.

알았는지는 미지수이다. 당시의 방갈랄과 아단 등 나라는 조선과 명처럼 기린에 관한 공유된 상상을 매개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광야오(王光堯)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린(giraffe)을 수입해 온 아랍인들이 기린이 지닌 의미와 이미지를 알지 못한 채 조공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과 무역을 해온 아랍인들이었기에 만약 동아시아에서 기린이 상상된 방식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1414년 이전에 이미 기린을 보내 큰 이익을 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¹ 이와 달리 명나라와 조선은 기린에 관한 상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화적 상징 의미가 현실적, 정치적 의도와 조응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문화적·지리적 맥락에서만 기린에 관한 상상, 그리고 그 출현으로 증명 가능한 태평성대에 관한 관념이 현실로 전환될 수 있었다. Giraff를 麒麟으로 번역한 것부터가 영락제의 정통성 문제라는 명나라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으며, 조선왕조에서 축하 사절단을 네 차례 보낸 것 역시 당시 외교 정세를 고려한 조선의 현실적, 정치적 수요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그렇기에 기린의 등장에 명과 조선이 보인 반응은 동아시아에서 기린에 관한 상상이 공유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시사하는 것을 넘어, 명과 조선 각자의 정치적 의도가 서로 조우하여 관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명 황제들이 기린을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했던 과업은 그 내부에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대내외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외교적 관례를 수행하여 동참함으로써 더욱 철저히 달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 한편으로 현실의 기린(giraffe)이 신화가 되는 역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기도 했다. 기린(giraffe)은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었으나, 명과 조선에서는 그동안 실제로는 확인된 적 없이 먼 옛날

51 王光堯, 앞의 논문(2021), 106쪽.

황금시대에 출현한 바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새로운 동물이 아닌, 기존의 기린(麒麟)으로 수용했다. 이 때문에 기린(giraffe)이 아프리카와 아랍 등 지역에서 지냈던 한 생명체로서의 속성과 의미는 소거되었을 것이다. 이같이 신화와 현실 간의 빠른 전환은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신화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린(麒麟)은 그 언젠가 존재했다는 황금시대에나 나타났다는 초자연적 특성 덕분에 오히려 현실 정치와 단단히 결합하여 정치적으로 작동하는 실재였다.

V. 맺음말

15세기 명나라에서 giraffe가 麒麟으로 ‘둔갑’한 사건의 범주를 한반도까지 넓혀 고찰한 결과 동아시아의 사회 및 정치 체계에서 신화적 사유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화하서양을 통해 유입된 기린(giraffe)은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었으나, 명과 조선은 이를 성군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기린(麒麟)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두 국가 모두 기린의 출현을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조공 체제를 회복하여 외부적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영락제는 뜻밖에도 기린의 등장으로 외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권력을 다질 수 있었다. 명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했던 건국 초의 조선은 상서의 징표가 나타나면 사절을 보내는 통상적인 외교 관례에 따라 기린의 출현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냄으로써 탄탄한 대명 관계를 도모했다.

현실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현실이 되는 이 같은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신화적 사유에 있었다. 기린에 관한 상상, 그리고

천인감응론의 상서·재이설, 삼대 성왕의 황금시대에 관한 정치 신화가 한데 어우러져 명과 조선의 다양한 현실적인 욕망을 실현해 주었다. 전통 시기 동아시아에서 신화와 현실의 유기적인 결합은 정치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했다. 진실로 믿어진 신화, 다시 말해 역사적 실재로서의 신화는 현실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기능했는데, 진실이라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특성 덕분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신화와 현실의 경계는 느슨했고, 그 용도는 다양했으나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 또한 두드러졌다. 또한 이 사건은 전통 시기 한중 두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정치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양국의 상호 교류를 유교 중심으로 이해해 왔지만, 이 사례는 유교 정치 원리가 신화를 윤회유로 삼아 작동되기도 하며, 공유된 상상을 통해 양국의 외교 활동에도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왔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世宗實錄』, 『太宗實錄』.

『孔子家語·辯樂解』, 『禮記·樂記』, 『禮記正義』, 『論語』, 『孟子』, 『明史』, 『明實錄』.

『帝王世紀年』, 『春秋公羊傳』, 『漢書』.

丁若鏞, 『與猶堂全書』.

2.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미르치아 엘리아데(저), 이은봉(역), 『신화와 현실』. 파주: 한길그레이트북스, 2011.
이은상, 『정화의 보물선: 중국의 대유럽 무역사 500년으로의 향해』. 파주: 한국학
술정보, 2014.

장형근, 『성왕: 동양 리더십의 원형』. 서울: 민음사, 2012.

정운재·정재훈·부남철·유미림·배병삼·강숙자·박현모·이지경·박영도·문중앙,
『세종의 국가경영』. 서울: 지식산업사, 2006.

크릴 H. G.(저), 이성규(역), 『공자: 인간과 신화』. 서울: 지식산업사, 1983.

티모시 브룩(저), 조현영(역),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Edelman, Murray, *Political Language: Words That Succeed and Policies That Fail*,
Orlando: Academic Press, 1977.

Laufer, Berthold, *The Giraffe in History and Art*, Chicago, IL: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28.

費信(著), 馮承鈞(校注), 『星槎勝覽校注』. 北京: 中華書局, 1956.

郝懿行, 『山海經箋疏』. 台灣: 藝文印書館, 1975.

馬歡(著), 萬明(校注), 『明鈔本瀛涯勝覽校注』. 北京: 海洋出版社, 2005.

3. 논문

김동민,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한 고찰: 祥瑞·災異說을 중심으로』, 『동양
철학연구』 36, 2004, 322쪽.

- 선정규, 「중국 신화관의 변천 과정 연구」. 『중국어문논총』 16, 1999, 73~100쪽.
- _____, 「중국 정치신화의 기능과 유형」. 『중어중문학』 53, 2012, 95~131쪽.
- 송정화, 「명대 동물 조공의 문학적 재현과 의미에 대한 탐구」. 『중국학보』 103, 2023, 145~178쪽.
- 이재중, 「麒麟圖像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徐秀娟, 「麒麟形象的變遷與中外文化交流的發展」. 『海交史研究』 2002(01), 2002, 57~63쪽.
- 王光堯, 「永樂皇帝的麒麟: 海外考古調查札記(四)」. 『故宮博物院院刊』 2021(7), 2021, 104~110쪽.
- 張璇, 「鄭和下西洋與“麒麟”神獸」. 『文史知識』 2019(4), 2019, 34~42쪽.
- 趙秀玲, 「明沈度序本《瑞應麒麟圖研究》」. 『西北美術』 2017(2), 2017, 113~117쪽.
- 鄒振環, 「音譯與意譯的競逐: 麒麟, 惡那西約與長頸鹿譯名本土化歷程」.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55(2), 2016, 119~128쪽.
- 鄒振環, 「鄭和下西洋與明朝的“麒麟外交”」.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2), 2018, 1~11쪽.
- 張之傑, 「永樂十二年榜葛刺貢麒麟之起因與影響」. 『中華科技史學會會刊第八期』 2005(1), 2005, 66~72쪽.

4. 웹사이트

天妃行宮 天妃靈應之記碑 碑文, 百度百科(<https://shorturl.at/zUY34>).

국문초록

15세기 정화하서양을 통해 아프리카 초식 동물 giraffe가 명나라에 수입되자, 명과 조선 모두 이를 각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군과 태평성대의 상징 麒麟으로 받아들였다. 조공 체제를 회복하여 대외적 안정을 모색하던 영락제는 기린의 등장으로 내부적으로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건국 초 명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했던 조선은 기린의 출현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 대명 관계를 다졌고, 이로써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꾀했다.

이 사건은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신화적 사유를 기반으로 일어났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역사적 실재로서 신화는 진실이라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특성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기린에 관한 상상, 천인감응론의 상서·재이설, 그리고 성왕의 태평성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실 동물 기린을 신화 동물 기린으로 수용한 명과 조선의 독특한 태도는 전통 시기 동아시아에서 신화와 현실의 유기적인 결합이 정치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한중 양국의 상호작용에 기준이 됐던 유교 정치 원리에 신화적 사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투고일 2023. 6. 20.

심사일 2023. 7. 17.

게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기린(Qilin), 천인감응론(Theory of Mutual Resonance between Tian and Human beings), 성왕론(The Ancient Sage Kings), 정화하서양(Zheng He's Voyages), 동아시아 신화(East Asian Mythology)

Abstract

Shared Imagination of Qilin(麒麟) and Its Political Utilization in 15th-Century East Asia

Lee, Jeongha

During the 15th century, when the giraffe was imported to the Ming Dynasty through Zheng He's voyages, both the Ming and Joseon Dynasti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olitical needs, embraced it as a symbol of auspiciousness, interpreting it as a mythical creature—the qilin. The Yongl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who sought to restore the tributary system and achieve external stability, was able to consolidate his internal power with the appearance of the giraffe. During the early days of their founding, Joseon valued its friendly relationship with Ming and followed the diplomatic conventions of the time by sending envoys to congratulate the arrival of the giraffe, establishing a relationship of mutual prestige.

This event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mythological beliefs of East Asia. In East-Asian traditional societies, even though myths as historical reality were believed to be true, their supernatural qualities paradoxically provided them with greater political and practical efficacy. The unique attitudes of Ming and Joseon, which incorporated the real animal—the giraffe—into a mythical animal—the qilin—based on the shared imagination of the qilin, theories of mutual resonance between Tian and human beings, and the myth of the Sage Kings, demonstrate that the fusion of myth and reality could have significant political implications in traditional East Asian societies. Furthermore, this provides crucial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mythology on the Confucian political principles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Korea.

